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의 주도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朴 贊 殖*

I

주지하다시피 1898년의 ‘房星七亂’과 1901년의 ‘李在守亂’은 제주도 근대사 상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민란은 大韓帝國 시기 제주도 민들을 대상으로 수탈을 심화시켜 가던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항쟁이었다.” 그러므로 두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이 여러 면에서 발견된다. 우선 민란의 주요 원인으로 牧場土를 비롯한 公土에 대하여 과다하게 징세하는 稅弊가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산간 지대에서 火田을 경작하던 빈농층들이 대거 민란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두 사건의 이면에는 도외에서 유입되어 들어온 신앙체계인 南學과 天主敎가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 유배형에 처해졌던 정치 유배인들이 각각 이 사건들에 간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말의 외세 침략이라는 외적 조건이 두 민란에 각각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란지도부가 일본 침략세력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성을 맺고 있고, 특히 李在守亂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반면 두 민란 사이에는 차이점도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립구도

* 제주대 강사

- 1)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拙稿, 『濟州島史研究 회고와 전망(1980년대), 韓末·日帝時代,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1991. 拙稿, 『韓末 濟州地域의 天主敎會와 ‘濟州敎案’』,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근간 예정).

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房屋七亂이 화전민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 관·향리·향입층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반면, 李在守亂의 경우 일반 민인들과 향입세력이 연대하여 擲稅官과 결탁된 천주교회측과 항쟁하였다. 둘째로는, 남학과 천주교의 민인들과의 결합 형태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즉 남학은 大靜郡 光淸里를 중심으로 하여 화전민들과 결합하여 민란을 주도하였던 반면, 천주교는 오히려 민란참여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셋째, 유배인들의 동향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즉 房屋七亂 당시 유배인 金洛榮·崔亨順이 민군 지도부에 합류하여 민란에 참여하였으나, 李在守亂에서는 유배인 崔亨順·李範疇·李容鎬·張允善 등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민군으로부터 배척당하였다.

이러한 두 민란의 연관성 때문에 제주지역의 근대 민중운동을 검토할 때는 이 사건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기왕의 연구에서 이들 민란에 대한 자료가 많이 발굴되었고, 자료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작업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당시 민란주도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자료상의 한계점으로서, 결국 연구자들로 하여금 민란의 전체 구조를 그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그런데 최근 두 사건의 보고서와 재판 판결문 원본이 영인되어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하여 주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소개함으로써 연구자들이나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자료에 나타난 주도세력의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II

『司法稟報』 2권(亞細亞文化社, 1988)²⁾에는 房屋七亂에 대한 察理使兼濟州牧使 朴用元³⁾의 보고서(『報告書 第二號』; 이하 「報告書」로 약칭)가 수록되

2) 『司法稟報』는 1894년(高宗 31년)부터 1907년(光武 11년)까지 朝鮮王朝(및 大韓帝國) 法部에 전국 각지의 官衙들과 地方裁判所들이 보내온 報告書·質稟書 등 각종 公文書를 法部에서 製冊한 방대한 자료로서, 현재 奎章閣에 收藏되어 있다(愼鎬廈, 「司法稟報 解題」, 『司法稟報』 1-5, 1988).

3) 房屋七亂의 책임을 지고 李秉輝 牧使가 체임되고, 朴用元이 1898년 2월 20일자로 새로이 濟州牧使에 부임하여 왔다.

어 있다. 여기에는 민란주도자들의 신상과 범죄 내용이 소상히 정리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1898년 房星七亂의 주도세력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續陰晴史」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드러난 한계였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중심으로 房星七亂의 주도세력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報告書」의 사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는 자료상의 한계로 房星七을 비롯한 南學黨 중심의 御南軍에만 주목하여 왔다. 그런데 「報告書」에는 화전민을 위주로 하여 도민들 가운데 참여하였던 자들의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들과 남학당 지도부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報告書」에는 지금까지 불분명하게 알려져 왔던 房星七의 나이, 入島 시기, 민란시 그의 지위와 계획·활동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⁴⁾ 즉, 그의 친족인 房鑽玉의 공술 내용에 보면, 그는 50세이고, 본적은 전라도로서, 1891년에 제주에 들어와서 1898년 당시에는 菱花洞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梁明模의 공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姜辟毅이 梧登村의 高如松이란 인물을 主法으로 세울 것을 제안하였으나, 房星七은 鄭鑑錄의 참언에 따라 유배인 鄭丙朝를 主法으로 삼을 것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鄭丙朝가 도피하여 버림에 따라서 결국 자신이 스스로 法司가 되어 독립정부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이때 房星七은 제주의 유배인들로 하여금 六曹를 구성케 하여 중앙정부와 같은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였다.⁵⁾ 따라서 「報告書」를 작성한 朴用元 牧使는 이 사건을

4) 房星七의 신상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 기록에 불과하였다.

① “……狀頭方甲 一名鑽杜 又名星七 同福人 年前入島者 體幹長大 有膽力 好術數 山祭二十年 與姜辟毅·鄭先馬 八十老童 皆稱異人”(「續陰晴史」 光武 2년 3월 1일)

② “……有陸民房星七者 以甲午入濟州 解妖讖星曆惑衆……”(「梅泉野錄」 光武 2년 2월 2일)

연구자들은 이 기록에 따라서 房星七은 나이가 80여 세이고, 1894년에 동학 농민전쟁에 참여하였다가 관의 검거를 피하여 제주에 입도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여 왔다.

5) 이러한 내용은 「續陰晴史」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완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 민란의 지도부가 別圖의 건설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今國運已衰 眞人當出於海島 此機不可失也 且濟州謫客之多 未有如今日 文武俱修 此天贊吾事也”(光武 2년 3월 4일)

단순한 민요로 보지 않고 반역 사건으로 중앙에 보고하고 있다.

셋째, 「報告書」에는 민군의 조직에 대하여 「續陰晴史」의 내용을 보완시켜 줄 내용이 적혀 있다. 즉, 姜齊平·金安日을 先軍領으로, 梁用已·姜明松을 後軍領으로 정하고, 吳乙生과 房星化(房星七의 弟)는 장정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房星七의 심복 부대인 御南軍은 2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자의 목봉 머리에 '南'자를 새겨서 남들과 구별하였다.

넷째, 민란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도 일부 보인다. 우선 牧使 李秉輝가 수탈한 場火稅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어서 화전민들이 봉기한 원인을 실감하게 한다. 즉, 1897년의 제주읍의 장부에 기재된 규정 집세액은 1,200石 1斗였으나, 실제 도민들로부터 집세한 액수는 1,838石 14斗 9升 7合이었다. 또한 이 사건에 참여하였던 민인들 가운데는 이전 1896년에 있었던 민란⁶⁾의 진압을 담당하였던 蔡龜錫 大靜郡守나 朝天金氏 일파 등 제주도 토호 세력에 대하여 반감을 품은 자들이 많았다고 「報告書」에는 적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房星七亂과 연관성을 갖는 1896년 민란에 대하여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報告書」에는 반민란세력인 倡義軍 주도자의 면모와 그들의 활동 내용이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이는 민란시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房星七亂을 전후하여 제주지역 향권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각 주도 인물들이 민란에 참여한 동기와 활동 내용, 민란 과정에서 민군에 의하여 피살된 자들의 신상, 가해자의 명단, 민란주도자들에 대한 처리 내용, 민란 진압에 공을 세운 자들에 대한 포상과 포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報告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房星七亂 주도세력의 신상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⁷⁾

6) 이 사건은 1894년 甲午改革 이후 실시되었던 새로운 지방제도의 시행에 반발하여 도민 姜瑜爽과 宋啓弘 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민란이다(濟州道, 「濟州道誌」 第1卷, 1993, 1013-1014쪽 참조). 그러나 이들이 왜 신제도의 시행에 반발하였고, 민란의 전개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7) 奎章閣에 소장된 「光武4年 濟州牧刑名簿」(奎-21278)에는 민란주도자들의 신상과 형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함께 참고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표 1〉 房星七亂의 주도세력

순번	성명	거주지	나이	신분(직업)	비고
1	房星七(甲, 鐵杜)	大靜 光清 菱花洞	50		1891년 전라도에서 입도 피살, 狀頭·民軍의 總大將·法司
2	姜辟毅				피살, 南學黨, 민란주모자
3	鄭先馬(山鹿)				南學黨
4	崔亨順	濟州邑內	28	出身, 유배인	民軍의 右大將(中軍)
5	金洛榮	濟州邑內		유배인	피살, 民軍의 左大將(大將)
6	梁明模	大靜 上文里	35	농업, 前座首	징역 15년
7	白鶴潭	濟州 一徒里	37	笠工	징역 15년, 左翼將
8	朴僑吉	大靜 鹿下旨	47	농업	종신형
9	姜齊平	大靜 瀛南里	28	농업	종신형, 民軍의 先軍領
10	金才能	大靜 大浦里 火田	36	농업	징역 15년
11	金安日	大靜 道順 法井洞	48	농업	종신형, 民軍의 先軍領
12	梁用已	大靜 上文里	44	농업	종신형, 民軍의 後軍領
13	姜如云	大靜 西峙	46	농업	징역 15년
14	姜明松				民軍의 後軍領, 도망
15	吳乙生				聚丁 來會, 도망
16	房星化				房星七의 弟, 聚丁 來會, 도망
17	文基成				房星七을 隨從
18	房鐵玉				房星七의 친족
19	金成均				勳兵書와 郡錄冊 작성, 도망

위에서 보듯이, 房星七亂의 주도세력은 房星七·姜辟毅·鄭先馬·房星化·房鐵玉 등 도외에서 입도한 南學黨 세력과 일부의 유배인, 다수의 대정군 지역의 화전민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梁明模와 같이 座首를 지냈던 자도 있지만, 주도세력의 대부분은 화전을 경작하던 빈농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房星七亂은 신흥종교와 화전민층이 결합하여 지방관·향리·향임층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III

李在守亂의 지도부에 대한 平理院 判決宣告書(이하 「判決宣告書」로 약칭)

는 1995년 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에서 간행한 「國權恢復運動判決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判決宣告書」는 李在守亂의 주도자들에 대한 平理院의 최종 판결문 원본으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는 吳大鉉, 李在守, 姜遇伯의 판결 내용이 「舊韓國官報」(光武 5년, 1901년 10월 18일자)에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굴된 「判決宣告書」에는 이들 외에도 金南赫, 趙士成, 高永守, 李元方, 高三伯, 姜伯伊, 馬贊三 등의 관련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민란 주도자들에 대한 신상명세가 뚜렷하게 적혀 있어서 이들의 거주지, 나이, 직업 등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천주교회측에서 사건의 주요혐의자로 지목하였던 前大靜郡守 蔡龜錫에 대한 1903년 9월의 平理院 판결문도 들어 있어서 주목된다. 더구나 이 판결문에는 1901년 5월초부터 비롯된 大靜郡 민인들의 民會 개최로부터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民會에 집결한 민인들이 濟州牧使에게 稅弊와 數弊의 시정을 호소하여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上京하여 호소할 것을 결의하였음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과 관련하여 종래 주목되었던 조직은 蔡龜錫 등이 주도하였던 '大靜商務社'였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된 姜伯伊와 馬贊三의 판결문에는 '大靜商務社'에 이들이 관여한 내용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判決宣告書」는 商務社에 관련된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姜遇伯이 山砲手를 모집한 경위, 各里 洞任들이 동원된 경위, 민군의 입성 후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한 내용 등이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결국 「判決宣告書」는 李在守亂의 주도자들에 관련된 최종 판결문으로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서 李在守亂의 실상을 재조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자료는 韓末 大韓帝國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문이므로, 사료를 취급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李在守亂을 바라보는 정부측의 시각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타 다른 자료(金允植의 「續陰晴史」 및 교회측 자료)와의 비교 검토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判決宣告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李在守亂 주도세력의 신상을 표

‘房星七亂’과 ‘李在守亂’의 주도 세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

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李在守亂의 주도세력

순번	성명	거주지	나이	신분(직업)	비고
1	蔡龜錫	대정군	52	大靜前郡守	商務社 分社長
2	吳大鉉 (吳乙吉)	대정군 예래리	27	前鄕長	商務社 明社長
3	李在守	대정군 인성리	25	里綱·官奴	商務社 執事
4	姜遇伯	대정군 월평리	41	里綱	商務社員
5	姜伯伊	대정군 예래리	67	里綱	商務社 明查員
6	馬贊三	대정군(전남영암군)	50	商民	商務社 班首·收錢有司
7	趙士星	대정군	29	목수	商務社 執事
8	金南赫	제주목	34	雇傭	城內 開門狀頭
9	高永守	제주목	64	砲手	
10	李元方	제주목	44	尊位	
11	高三伯	정의군	36	海夫·洞長	

민란주도세력은 大靜郡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표에서 보듯이, 민란주도세력은 商務社 조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商務社는 원래 裸負商 조직으로서 관권과 밀착된 어용조직이었으나, 제주도에서는 그 조직 형태를 빌어서⁸⁾ 조세징수권·상권 등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단체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⁹⁾ 大靜郡의 商務社 조직에는 당시 大靜郡守인 蔡龜錫이 분

8) 裸負商 조직으로는 1883년에 惠商公局이 설립되었으며, 1885년에 商理局으로 개칭하였다. 1894년에는 商理局이 혁파되었다가 1895년에 정부는 商務會議所를 설립시켰다. 그리고 1899년에 商務會議所를 개칭하여 商務社를 설립시켰다. 惠上公局의 지방조직으로는 道에 都班首·都接長·幫辦을 두었으며, 各邑에는 班首·接長을 두었다. 그리고 商理局의 경우에는 지방임원으로 都班首·都接長·公事長·明事長·都公員을 두고 그 밑에 書記公員·本房公員·執事·使令·房直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商務社의 지방조직으로는 각 지방에 支社를 설치하며 支社의 分社長은 관찰사가 겸하고 牧使·府尹·郡守가 分司務長을 겸하며, 그 밑에 公事員·掌務員·財務員·書記·執事·幹事·雇傭을 두었다(崔珍玉, 「韓末 裸負商의 變遷」, 『精神文化研究』 29, 1986, 151-159쪽). 그러므로 大靜 商務社는 이러한 보부상 조직의 지방 임원 명칭을 빌려 썼음을 알 수 있다.

9) 大靜 商務社를 단순한 반천주교 조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래 대정 상무사는 봉세관의 집세에 저항하고자 하였던 조직이었다(『續陰晴史』 光武 5년

事長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商務社 간부들 가운데 대부분이 大靜郡의 鄉長과 里綱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일반 商務社員 가운데는 商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¹⁰⁾ 따라서 이러한 商務社 조직에 주목하였을 때, 李在守亂의 주도세력은 우선 자신들의 향촌사회에서의 기득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민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대체로 鄕任 세력이 주도세력으로 나서고 있다.¹¹⁾

李在守亂에 항입층이 적극 나서게 되었던 이유는 韓末 천주교회가 사회세력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향권을 주도하였던 자신들을 위협하였던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李在守亂은 항입층이 주도하는 가운데 화전민을 비롯한 빈농층과 다수의 일반도민이 참여하여 擄稅官과 천주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어 갔다.

5월 9일). 그러나 세폐를 시정하고자 하는 민인들의 움직임이 民會로 발전하여 가자 상무사의 대표였던 蔡龜錫은 상무사원이었던 姜伯伊에게 상무사를 혁파할 것을 권유하였다(「判決宣告書」). 그리고 蔡龜錫 자신은 商務社와 民會와의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교회측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하여 보고자 하였다(「續陰晴史」 光武 5년 5월 15일).

- 10) 商務社員이었던 姜伯伊의 판결문에는 蔡龜錫이 商民들을 불러모아 商務社를 혁파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며, 馬贊三의 경우에도 말을 행상하는 상인이었다.
- 11) 「判決宣告書」 외에도 여러 자료에서 항입층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拙稿, 「韓末 濟州地域의 天主教會와 '濟州教案'을 참조하기 바람.

光武二年五月十一日
刑部

第二十六號

報告書

潭陽郡守金德洙州報告內開州本郡終身徵役
金古者不可偶得鼓脹症者外金身浮高州終
來得差者外本年四月十三日仍為病斃外屍身
已檢驗者工成案修報早七等因引各引茲州責

上者立以

查照者乃是伏望

光武二年四月二十七日

金羅南道觀察使尹雄烈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閣下

報告書第二號

本職到任後詳探民擾事狀則非擾伊逆也伊逆魁房屋

七武備是本年三月十四日伊已為倡義人等所殺伊已同意之

已捕及追捉者是次第招入言伊前後事實是屢回盤問則

梁明模所供內伊矣身是大靜郡上文里農民也伊陰曆正月

十八日聞有眾民呈狀之事而所謂狀頭房屋七是始逢

於路上言伊問其訴由則答以為場火稅濫棒事也伊此自

朝家至已為革罷而官負欺罔誣民故互有此訴伊

伊已如斯聞之矣伊以二月二日伊房賊伊在法正地金安日

家言伊煽民作擾之說伊狼藉喧傳則本郡守蔡龜錫

謂矣身曰汝於吾等內暫經座首之任則不得不送

汝探之伊故互逐往金家則房賊對眾出言曰聞牧使

使姜伯互欲捉殺吾輩云言以吾當先殺姜伯互緇革

請辭為辭故互矣身言其不可則彼終不從言互欲為驅

民入城之計而矣身懼其禍及而避歸言伊奔告本郡守

互互欲為還家則郡守曰汝以同心做事樣互互往入其黨言

伊探情以來云而矣身言告以後日玉石俱焚之可慮則郡

守曰豈可無發明之道乎伊如是曉諭故互往見房賊則

殺矣身以毛笠言伊使之同行而以姜齊平金安日互稱以

先軍領而驅民先往言互梁用已姜明松互互名以後軍領

而率衆後進言曰吳乙生及房賊之弟星化亦亦聚丁未
會而同月十日則房賊使衆民互各持木棒而入城
時則邑民及官屬輩或有窺覘者則并打殺之意是有
所蔽東而伊日則衆可數萬也則姜齊平人奎安日採用已
下傳致姜伯甥侄俞澹辰為名者則房曰此止隣人之甥
侄也則古且使之打殺而仍使美身互請來配人金洛榮
崔亨順後則房曰縛束四官長而威脅之古亦使從民
顧以為宜云則崔曰苟如是也則吾不來也互則官民
有分古以為敢乃爾則互必陪坐牧使古且請來紳士古亦
爛確抹弊亦可也云而房曰從來示弱不能濟事古
濟事云

禁題

古期欲請出牧使故互矣身入政堂言語未竟則房
又率民入庭而牧使亦下庭則房曰民人之抱冤等狀不
是異事而何欲縱人殺吾乎云則牧使曰從何聞之耶
初無是事云而房賊則備以丙申民攪杖頭捉網之人及時
任作弊諸人並捉來事互為言而牧使許之則房乃率衆
退出而衆民則要其齋場遂願古亦復與房賊互為一齊
攔入言亦敢行毆打牧使之舉而大靜郡守互以丙申攪魁
捉網之嫌互亦為杖傷而矣身以該郡守勿犯之意互假
傳杖頭之言於衆民古亦仍令矣兄及衆民互保護以去
而本牧首書記文周良立翼蔽牧使則亦竟死於亂聲

下引曰引衛解之破打外支邊之燒爐引亦在伊時而房
 賊引出官門外觀德亭引古引以金洛榮為大將引何以雀
 亭順為中軍引古引仍與金洛榮交耳密語後引使矣身
 之引豆請來配人鄭洗馬引兩朝故引豆引生言則稱病不來而金
 洛榮引謂房賊曰事不可無預備引古引使之發古庫之
 米引古引取武庫之械引古引以為防禦之計而有引所謂姜辟
 殺者來訪房賊則賊引稱之以先生而善遇之引古引房
 姜金三漢引相議曰計將安出引古引姜曰梧登村引有高孝
 子如松者引古引出天之孝也引古引可受天命引古引立為主法引
 可也云則房曰彼乃無識無感引古引不足以爾眾望也引必
 濟州引古引以鄭氏豆為主法引古引可應識語則向所謂鄭洗馬是以
 高之世引古引現今編配諸人引古引可備大曾引古引送轎迎鄭則
 鄭已逃避而姜也勸房自立則房賊引始馬掖之斗引乃
 曰吾於向前祈禱時引古引以五百將軍付我出世之意引
 已現於身引古引古引遂自立為法引古引即法天司民之義也引
 以大靜在義兩郡中罷遣及場火稅貢馬代錢獨善湯事
 豆揭榜四門而聞朝天民人等倡義來攻之說引古引豆領眾往
 彼則故里所聚之民引古引勢孤即散而房賊引以前對官金
 膺城前事引古引金膺海之出義聚眾引古引濟州郡守金熙曾
 之上京告變引古引該郡守叔前府使潤柄之丙申提魁捕納

事_二而_一嫌_二言_一。上項人等家舍_二言_一或燒或毀而濟倅則其
 諸_二後之家舍_一俱被打破_二言_一其徒弟熙璠_二亦_一尚房賊
 隨_二從文基_一成_二可_一所殺_二言_一內房賊_二慮京兵下來_一言_二積石
 城上_一埋砲城頭_二言_一又有借兵日本之密議而未幾_二果使
 崔亨順_二言_一住于城山浦漁林日人處_二言_一歸語房以
 日人聽_二從則房賊_一解送衆民_二言_一吾當借來日兵_二言_一以推
 京兵_二言_一所以救衆命_二言_一與衆身及金洛榮崔亨順姜
 齊平吳乙生_二言_一同登日船而遭風不行之際_二聞衆朝官
 守城_二募民之說_一言_二一齊_一下陸而房賊心腹之所謂_二御南軍人
 十餘名_二言_一尚在瀾邊故_二言_一欲與之同入城中_二言_一亦不知_二屋
 第_一 第 送
 實_二言_一牛轉向山村而伊時_二來附於房者_一漸衆_二言_一及
 見_二倡義丈之招衆_一擊賊_二言_一稍稍散去而于三日_二倡義兵
 引_二趕到_一故_二言_一與身則隨機逃還而追_二聞房賊_一為倡義兵_二
 所殺_二言_一姜辭教_二金洛榮_一亦相繼而死_二言_一日本所
 送_二請兵書及都錄冊_一金成均_二所寫_一所謂正法冊子_二房
 賊自_二等而_一與身之當初_二往衆_一受_二官指_一揮_二身_一單竟相隨_二
 既身不得_二言_一計_二言_一內_二房賊_一之驅民入城也
 則不_二從者_一則必欲毀其家而打其人故_二言_一為其_二所感_一脅而強
 從之_二言_一內房賊_二以心腹_一二百餘名_二言_一稱_二以御南軍_一言_二使
 之_二各於林頭_一刻_二以南字_一而表之_二言_一內房賊_二此朴信

吉曰先犯牧使之習極為乖悖云而朝天人金熙璠之先上
 出於文基成之手이다이오曰金在能所供內州房賊之作變也
 則勤授軍刀於矣身故豈不得不佩之而伊時首犯牧使者
 出朴信吉이音正先毆文周昊者出是個瞎子而姓則姜也
 이오曰先打俞海辰者出深用已이다이오曰文基成所供內州
 矣身이與房賊入城否이佩軍刀隨行而今犯犯罪否이不
 犯何俟引오果然往朝天之時이有何許人避走者故豈以
 棒再打則其人이還了一棒于矣身이오外處憤莫佳否이
 拔軍刀而斫之則當下昏倒而追後則始亦其人之為金
 熙璠이다이오曰朴信吉所供內州矣身이因房賊指揮否

濟州 卷 第 道

否佩軍刀隨行而矣侄子辱之犯殺獄而在囚者豈破其
 枷而救之이音正仍為入衙否이脫去牧使所着之笠否이一打
 以棒之後則不敢再犯而書記文周昊則眇一目之姜如云
 이否先打이다이오曰姜如云所供內州矣身이亦佩軍刀否이
 參於鬧場이오初不向文周昊下手而大抵人之眇一目者
 不但矣身一人則彼兩人이必見他瞎子之行打而認以為矣
 身否이有此挺身立證이오外矣身則雖飽杖下豈必不
 以不打而曰打이다이오曰金安日所供內州今年二月四日則
 房賊이謂以欲避官捕而來否이否留矣家者為三四日
 而及夫率衆入城之時則今矣身先行故豈依其言從之

이오曰俞海辰은姜伯之甥侄也卧姜伯族戚則逢軌捉來
 之意은有房賊所言이오卧矣身及姜齊平梁用已三人
 이果捉俞來而先打之人則蒼黃中未及見之이오衆民
 作變時에矣身이非不隨衆同入이오小實不見誰犯牧使
 外誰打文吏이오이오卧白鶴彈所供內에房賊之率黨入城
 也卧柴糧이不入故은性見房賊古고饋以粥而給以楫而後에
 使之開四門通交易而房賊이以矣身은是爲左翼將이
 自에小謂以無識而降為執事故은是爲勢所迫古否不得
 不惟某言是從이오이오卧房鎮王所供內에房屋七은矣
 身之同胞弟也卧年今五十而本以金羅道之民은是年卯

濟州校

第 四

夏에入濟州古否今居菱花洞而性本浮浪古否既不從
 父母之言者久矣則鄙有聽同生之勉而政之引은其造
 逆情鄙是實所不知이오이오卧又聞出義人等所告內에
 房賊이率黨入城也卧配人崔亨順이言於配人前按理
 李容鎬曰吾觀此舉非擾伊逆也卧計將安出은李曰
 君이假爲其心腹古否乘機圖殺이爲可卧古고仍授以方
 畧則崔遂從之而是時에諸配人이舉皆避在于朝天
 里古否與兩判官金膺斌卧前主事金膺海은首先倡
 義이오卧房賊이懼京兵必來古否欲借兵糧於日本則
 崔亨順이暗生將計就計之心古否自請往漁採日人處

古叶成事以來古叶且遂出海浦古叶言房之逆狀於日
 人古叶納以誘房登船後叶合力殺之則必有重賞叶古
 古叶歸言以所幹如意則房乃解送衆民古叶且出浦登
 船而遭風停泊之際叶聞城中有變古叶且房遂下陸古叶
 復欲聚衆入城而是時叶前縣監洪在晉叶率其弟前
 縣監在深及子侄董古叶急閉西門古叶且前縣監宋斗玉
 亡率其子錫珍及其弟允玉與家丁古叶亦閉東南北
 門而城中民人叶數少古叶牛舉懷惶迫則洪宋兩人叶多設
 炬火古叶塵張聲勢古叶發送倡義文於各里古叶使之
 聚民而亦有諸配人之贊劃叶古叶是夜叶前主事金

濟州志

卷之

熙斗自距州十里許拱北村叶迎還收使于城中叶古叶房
 賊叶不散入城古叶且轉向山村之際叶洪宋兩人叶多殺民丁
 古叶使配人崔亨順前叶郎廳吳順沫前叶五衛將高在塔
 前司果姜時馨等叶領出南門而出身入南胤叶古
 率民四百餘名古叶且自西村來古叶合兵一處古叶且衆心成
 城古叶莫不貫勇矢外叶遂西馳千里許古叶接戰於外
 都里破軍拳而崔亨順等叶從上順勢擊之古叶且彼
 衆叶敗散而房賊叶力窮古叶走避村家則崔亨順吳
 順沫姜時馨及軍校趙成五等叶火燒其家古叶且鎗
 銃叶交加叶合力殺之叶古叶金洛榮叶是房賊下陸後叶知

事不措古立從崔亨順入城古非以掩跡之計互托言其
 誅房賊古立埋砲城上이타가墜城而死이오姜辟穀
 則前監役黃炳郁이타使安永道互擄納之路이타為衆
 民所殺이오房賊之宗星化가聚衆復來之說이有
 之則上項洪在晉宋王王金膺斌金熙斗及前僉使梁
 濟夏前主事金在鏞等。相率守城古非多有勤勞
 이타이오非以言乎本事則歛屋扶而蠲稅이타民所以
 相應也오擬毀家而打人古이衆可以強從也이타鳩聚이
 不過烏合이타豕突이타莫異螻蛄이타觀其設施이타
 固一笑之未滿이타究厥心腸이타雖萬剛而猶輕이타是

蓋此房屋七之陰蓄兇謀亦已非一日者古多年構
 神이果因何事而構이타兩省發通이宜為民事而發
 이리오破碎樹燒毀屋이已係凶敵이타毆打官戕殺人
 이合置何辟이타稱其庫以御南方古其居曰殿中古이
 是覆載之難容이타欲逃脫而易免이타擬借兵於他郡而
 出海이타其奈舟中皆敵이타有倡義之諸人而圍山古이
 能草間求活이리오皆可誅也이타宜有衆刃之文加오
 均是死也이타恨未法誅之先施이오이金洛榮姜辟穀
 是乘草之於房賊也이타便是翼之兩於鳥而輪之三於車也
 이타小大機輪이타百凡事為是無不與之同焉則其為可

殺是俱無異辭而今已盡覽古不必更論○又○梁明模
 之始終助惡是觀於本事指陳之無遺漏外渠口發明之
 亦破綻而可知也○既言曾有避歸之事古且何出後乃不
 脫之語○雖以出力救官而作為非叛之證○以至於從賊借
 兵而莫掩助逆之判○又○姜齊平金安日則縛致命民是
 莫目弦上之矢○豈非自由古○領行先軍是便同席前之
 鬼○動輒為禍則推波助瀾○厥罪惟均○又○白鶴彈
 金才能○文基成○相信○古姜如云等段是受賊牽制是縱云
 如牛馬之穿絡○以入城倡極○何至若鷹犬之執勇狂且
 就中○相信○古是其所首化收使是逆魁而亦叱之則必也正

名是斷不可已○又○文基成是刃殺金照璠之事是
 辭承款○少無雜色○古有若金之魂之附於渠而使之
 言也○斗如法償命是斷不可已○又○姜如云是先打文周
 吳是兩人證眼○獲獲俱明○引一辭賴古○萬萬可痛
 以外○是上項諸漢及房鎮至是并着加牢囚古○又○象拓
 所出之房屋化金成均梁用已吳乙生姜明松等段是并
 在逃未捉而其中房屋化金成均梁用已等三漢是罪固
 難貸○宜即捉勸故是另加偵探古○又○竊惟城民則慮
 餘等之復熾○古○頻驚夜半之夢古○且賊黨則懼密網
 之不解○古○似有沙中之語○是斗道脅從同治之訓古○

做反側自安之政古_古房屋化金成均梁用已外_外并置
 勿問之意_意發訓兩郡_郡言_言揭榜四門_門古_古使之安心歸
 農_農古_古互_互戶_戶所謂_{所謂}房賦之簿錄與日本_{日本}所送請兵書_{請兵書}之前
 牧使在任時_時已_已為_為上送于內部_{內部}言_言斗大_{斗大}批_批膏_膏初民_{初民}狀
 引_引因_因場_場火_火稅_稅濫_濫擇_擇事_事而起也_也斗_斗雖_雖以_以昨_昨年_年言_言之_之斗_斗互_互民間_{民間}執
 數_數立_立為_為一千八百三十八石十四斗九升七合_合言_言斗_斗邑_邑簿_簿所_所載_載上
 不過_{不過}一千二百石_石斗_斗引_引今_今眾_眾民_民馬_馬因此_{因此}起_起端_端言_言斗_斗房_房賦_賦則_則謂
 此_此可_可來_來言_言斗_斗惹_惹出_出一_一大_大關_關場_場而_而前_前牧_牧使_使不_不得_得以_以民_民間_間所_所執
 之_之一千八百三十八石零_零斗_斗破_破說_說後_後則_則依_依其_其石_石數_數古_古斗_斗每_每斗_斗頭
 三_三升_升式_式減_減給_給之_之意_意斗_斗曉_曉諭_諭眾_眾民_民言_言斗_斗以_以每_每年_年一_一千_千石_石式_式酌_酌定

濟州

三

事_事斗_斗雖_雖報_報度_度支_支部_部引_引今_今斗_斗便_便是_是隱_隱蔽_蔽而_而顧_顧也_也斗_斗莫_莫之_之救_救於
 與_與克_克已_已深_深斗_斗克_克謀_謀方_方急_急之_之際_際促_促引_引夫_夫場_場火_火稅_稅量_量以_以一_一千_千石
 斗_斗互_互酌_酌定_定則_則民_民間_間執_執數_數一_一千八百三十八石零_零中_中則_則八_八百_百三_三十_十八_八石
 零_零斗_斗固_固宜_宜減_減給_給於_於民_民間_間而_而前_前牧_牧使_使於_於一_一千八百三十八石零_零則
 每_每斗_斗頭_頭三_三升_升式_式所_所減_減者_者不_不過_過五_五百_百五_五十_十石_石十_十斗_斗四_四升_升九_九合_合一_一夕
 則_則未_未減_減之_之數_數斗_斗尚_尚為_為二_二百_百八_八十_十七_七石_石四_四斗_斗四_四升_升七_七合_合九_九夕_夕故_故斗_斗互_互本_本職
 引_引到_到任_任後_後則_則查_查出_出其_其未_未減_減條_條二_二百_百八_八十_十七_七石_石零_零古_古斗_斗照_照數_數單_單減
 於_於民_民間_間古_古斗_斗引_引今_今斗_斗以_以言_言斗_斗出_出義_義諸_諸人_人則_則前_前判_判產_產金_金膺_膺城_城前_前主
 事_事人_人金_金膺_膺海_海段_段是_是憲_憲營_營將_將之_之將_將燎_燎于_于原_原古_古斗_斗擬_擬發_發換_換之_之先
 登_登於_於城_城古_古斗_斗引_引今_今斗_斗以_以義_義聲_聲之_之動_動人_人引_引今_今斗_斗不_不愧_愧里_里名_名之_之朝_朝天_天而

亦是諸配人之從而激之也。使之倡焉。○○前縣監
洪在晉前縣監宋奉王政之父子宗侄之各自效死。不猶
有光於編妻妾而為伍。外虐宗黨而添兵。性計兩處
倡義。則收效焉。在邑古。各隊調遣。則發蹤也。同獵。○○前
崔亨順政。○○可謂詐不厭於兵而譎不失於正也。計同
登舟而行。刺上計。雖違於要難。先據山而料勝。○○等
不讓於馬服。而其所以能出奇殲賊。○○專出於配人李
容鎬。則激勸之指授之。而李容鎬之殫竭周旋。○○到底
贊劃。○○又多在於城村出義。○○出身金南胤。政之四
百餘名之樂為其用。○○已足出人而及其合力破賊之場。

濟州志

牧使印信。○○房賊簿錄。○○是并拘搜來。○○是也。惟其搜來
賊簿也。故云房賊之為巨逆也。並露古。○○同黨之為誰某
也。莫掩則勇敢人之能無精細者。是夫豈多得。○○前
郎廳兵順冰。前司果姜時馨。前五衛將高在。略軍校
趙成。五等段。○○冒砲兩而深入。古。○○披戈林而直擣。古。○○終
能告厥。○○是也。足見其知有義而不知有身。○○前監
役黃炳郁之捉納姜辟穀。○○前主事金熙斗之迎還前
牧使。○○俱保可嘉。○○音。○○上項洪在晉。宋奉王。金齊斌。金
熙斗。及前僉使梁濟。夏前主事金在鏞等。○○為處錄
黨復熾。古。○○相率守城。○○多有勦勝。○○蓋房賊之

逃拔首領是由於棄城鮮衆이오棄城鮮衆是由於請兵
 日本이오請兵日本是由於亦兵下來云云이오京兵下來云
 云是由於本州郡守金熙甯之上京告變則窮源極本
 古院該郡守之效勞가恐不在出義諸人之下이오引慘
 禍不及於從軍古고奇厄이 遍於一門古니誠極剛歎이
 오右項諸人은其在激勸之義에合有示義之舉이오
 可取考前牧使報度支部存案則倡義所用下錢四千
 六百兩九錢三分是民貸入用이다이오且前牧使施賞錢
 一千二百兩是社還四百石每石三兩貳錢用이다爲辭而虎
 其事實則前牧使施賞餘一千二百兩是果是社還中費

濟州府

卷 七

用이다至若倡義所用條則四千六百兩九錢三分
 內에三千七百三十五兩是社還八百三十石每石四兩五錢
 貳錢用이다且其餘八百七十三兩九錢三分民貸이다
 則其印蹟昭然之社還費用條上初不舉論古且全以
 民貸으로爲報者己是疑廣而且前牧使施賞條上每石
 三兩貳錢價古且倡義所用條上每石四兩五錢貳錢用
 者又是恟怩而此猶屬於第二第三也다夫兵軍의患
 於饑饉則社還之權許於倡義所用猶或可以及仲孺
 聚倉으로爲極이다至於以 國穀而賞自裁出은恐是
 率當이다是社還一千二百三十石虛留事是今方修報子

度支部以首元斗芽伏念源清則流潔古且彰端則表
 正也斗若使前牧使李秉輝互政固無疵則民豈有
 怨而惟其失望失心也久矣故互九厥積不平之民。攀
 有窮斯濫之心則彼久懷不軌之房賊。投間抵隙古
 乍一出除弊之說而從之者數萬則自謂民心皆歸斗
 古且遂行此亮謀者也斗竊探物議則尚於蒙巖之阿林
 之巖州畫地而相言者或云房賊。為民而死。斗亦即
 乎此。則益見夫民厭苛政之苦是其甚。以。所以大靜前
 郡守蔡龜錫言之。斗。被敵之事。上。謂。以丙申獲魁。捉
 納之故。斗。斗。斗。致擾之端。是由於前牧使濫播場火

之故。斗。斗。斗。此。則。舍有其說。而至於亂民之多出
 該境。是。繼。語。亦。較。滿。鄰。而。多。火。民。之。故。斗。斗。斗。斗。地方
 民之不能使之鎮靖。是。難免失職之責。斗。斗。斗。以此意。斗
 報明于政府及內部。斗。斗。斗。斗。

照亮古召。斗。伏。堽。

光緒二十二年四月二十日

察理使兼濟州牧使 朴用元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閣下

判決宣甚書

全羅南道大靜郡居

前鄉長

被告

吳大鉉

年五七

全羅南道大靜郡居

里綱

被告

李在守

年三五

全羅南道大靜郡居

里綱

被告

姜邊伯

年四十一

三 理 院

全羅南道濟州牧居

產傭

被告

金南赫

年三四

全羅南道大靜郡居

本手

被告

趙士成

年五九

全羅南道濟州牧居

砲手

被告

高永守

年六四

全羅南道濟州牧居

尊位

被告	李元方
	年四十四
全羅南道旌義郡居	海夫
被告	高三伯
	年三十六
全羅南道大靜郡居	里綱
被告	姜伯伊
	年六十七
全羅南道靈巖郡居	商民
被告	馬贊三
平理院	第 節
	年五十五
<p>在被告吳大鎔外李在外姜遜伯外金南赫外趙士成外高永守外李元方外高三伯外姜伯伊外馬贊三等外對念案外併言檢事公訴外由外此言當理外以被告吳大鎔外大靜郡鄉長外互擊行外言外今年陰曆三月十八日問該郡民外等外謂以秋勢難堪外互將屋訴屋外次互會于郡底外勒執被告外外請為狀頭外以被告思量外身為鄉任外外為民訴外頭外似甚不當故互避外官衙外外留宿兩日外外以本郡守外躬往民會外外曉諭退送外此同月念間外濟州民外等數十名外聞大靜民解散外奇外互相率來到外外搜覓被告之際外</p>	

被告自避身於民家計州民等。毆迫郡民亦竟致被告而
 衆民言曰汝若不為狀頭以難免衆人之踏死云故互被告亦
 被告而向濟州之路到翰林洞言以其諭且乞則衆民方
 有解散之漸。引以忽有教人數百名各持銃鉞互趕到翰
 林洞言向民會放死而致有申傷言互被告亦為教所獲
 言以鐵至死境矣引署牧使金昌休下聞發來到。時
 諭教言互押去被告言仍因言計三郡民人謂以救出狀
 頭言互散而復合言敵數益衆引司教人等直入靜言
 水發軍聲據城亂教言司郡民三四人。又被殺傷言互又於
 其翌日率三郡教徒互持軍器直向濟州言以登城埋砲
 正理院

言以開門拒守言互三郡之民聚會於黃沙坪言互邊令
 為兩陣言以也東西門外言以李在守言為西陣將言互
 姜邁伯言為東陣將言以相守至十四日之久言以教等出
 南門放砲言民多被殺故言東軍心愈激言募集山砲言以
 期毀破城言以城中言危急言以放出被告言使曉諭衆
 民言以被告不入陣言以仍為狀頭言以攻城益急言以城中
 之民言以皆盡報之言以生計無由言以男女合力言以爭先
 開門言以李在守言由西門先入言以被告與姜邁伯言由東
 門入言以爭殺教人言以死者甚衆言以事不加言以教師言以
 被告亦供補教師之能免過信言以渠之力也言以至於多衆教人

之被殺言之歸求矣身之主謀言惶恐無地不敢發明言
 言立被言事在守上太靜郡仁城軍綱之舉行意言司本年陸府三
 月陸問言太靜一邑之民以捧稅官稅整呈訴釐正次言諸會
 入郡之鄉長吳大鉉言已違言立名不知姜姓人新差兵計會民
 請吳大鉉為狀頭言將欲舉訴之際言本郡年言自郡報告
 于上言亦言洪民願矯揉之意言曉諭多民言使之解散故言
 各有歸家言且濟州民人等聞風煽動言馳到太靜言
 捉得吳大鉉為狀頭言驅到州境言署理收使言躬往
 曉諭亦如太靜郡事故言民將解散之際教人百餘名
 持銳劍趕到京向民會放死言有縛打吳大鉉言或致至死境
 王 珽 端

故救出仍囚言教人等言入太靜郡言奪軍器直向濟州開
 門拒守言三郡民言皆知吳大鉉已死言相謂曰吾等言欲謀
 執言契斗言不徒傷人命言不可不齊心同死言奔往濟
 州言教使亦已為備城閉門言拒守放死言故言州城東
 西言屯聚志民人中言九死者言合為十八人言眾心言愈
 激言招獵砲同心拒戰言至十四日之久則城中柴棘供
 乏言四月初九日言作書投城中言若不開門言則當縱火
 城中言其翌初十日言城中民金南赫等言奮書言
 從門隙出來言引言十一月午刻爭起閉門言招入會民故
 一齊擁入言與城中民言三舍衝突言教人隨捉被殺

京師報告亦供捕矢身可以里綱之致學洞民赴會言
 信引教人。雖學他國之書自有是我國臣民。是則人教
 中乎官不能治言立民不敢性言奪命財平人言言莫敢非
 何言言甚至殺人命而不敢言言向令卷三郡之民不耐稅擊
 亦齊會伸詐外何開於教人而奪軍器臨城放死言此非逆賊
 乎小矣等所殺之乃逆賊也。非良民也。亦雖死十無虎計
 言言五報告言滿伯之大靜郡月坪里。綱之梁行言言
 報告所居洞山月距郡可為八十里。且家有老父言
 待病不離故言所帶里綱之任。言言登正次入于本郡言
 適其時鄉長吳大鉉。與副吏房金至。言言有奸淫事相
 言 玆 院
 聞之端而欲金至。言言是教人也。言吳為教徒。所困故言東民
 言請吳大鉉為狀頭言欲為登正統擊教與言因本郡守
 之曉飭言仍為解教言言濟州之民。聞風而起言與郡民
 合執言搜捉吳大鉉為狀頭言向濟州之路。宿於翰林
 洞言人教人等。持兵器趕到言信言會民言同打吳大
 鉉言方在死境故言署理收使。不聞鐵來。到言言僅救吳
 大鉉而還。言言教人等。小還入大靜言奪軍器據城放
 死殺傷人命言言發向濟州去矣。言言其時。以報告言以渠之
 親病言言在家待湯。言言不及往見。言言同月于四日洞
 民等。來督報告言方令狀頭吳大鉉。為民禱與言下

反為教人所打言捉入濟州言必死乃己言三郡之民言
 一心合力言時訴次方向濟州言決以此洞羅網言何不
 羣民往赴寺言被告言辭不獲己言與洞民偕往濟州言
 三郡民言屯聚黃沙坪言而分作兩陣言李在寺言屯西門外
 西為西陣將言被告言屯東門外而為東陣將言以教人等
 已入城中言登城堦砲言且閉門不出而以眾民之力言已
 不能抵敵言嘯聚山砲言向城應砲言尚多日相持計至
 四月十一日午刻言城中民金南赫言率婦女并刀開門言故言眾
 民言一齊擁入言被告言與西陣將李在寺言屯東門入言
 屯聚於觀德亭飽圍上言城中男女外三郡民言人所所捉
 至理院言
 教人等言殺害言與吳大鏡言李在寺言亦無異同言已
 被告言金南赫言濟州城中言外實產遺言言言司今年陰曆三
 月間言三郡言與教人等言有所爭戰言州城言相據
 言言前教徒言先入城中言埋砲言放丸言向閉門不出
 言言會民言屯東西門外分陣言屯聚言相持十餘日言城中
 柴糧言俱乏言人心言沸湧言言言西門外言屯聚
 言言狀頭李在寺言辭通內辭言若不開門言則當縱
 火于城中言故言修巷言通出送言四月和八日言被告
 外與城內諸民言之商訴言官言度言以請開門言本郡言外
 與教師言至約定言許以同月十一日午後開門言故言退

待其美乃至十日下午後猶不開門以是被告不復與
 衆民男女互時詆官庭至教師以後待四五日上愬
 乞令列城中男女一時并起言即開東西門言
 招納衆民言教人等互致有殺屋言吳大錢姜
 遇伯李在守金昌洙恭龜錫等恭謹外確有可據言
 被告趙士成姜遇伯陣中執事互列今年陰曆三月
 二十三日姜遇伯指擲言受言率民數千言旌義郡
 為美里司至言五綱任言招致言出軍赴會言嚴
 飭言東路互循言旌義郡之民言倡起言向濟州
 作關言姜遇伯高三伯等恭謹明確言被告高永守

事理

以獵石為業言自不記今年陰曆四月初姜遇伯
 率衆民數千言被告居洞言責出民言又
 招軍故言被告不敢推逐言擊隣洞獵砲三名言為
 林恭言言被告稱安不經夜特別應放砲聲言警
 睡民而已初無人砲殺之事言出聲言持帶言被告
 李元方言以四門內專任言李在守入城之初先捉被告
 言謂以已領洗殺人言互欲殺言故被告之妻與洞
 民言呼訴本郡言神父言郡衙言適在言外不負乘講
 記言初不入教言大明圖生言亂民外感言示
 勝言教高伯年言提納民會而幸以得生言其外

則無一人指示言者，亦一直抵賴。言者控告押上時，誠洞民
 可控告言者為言，呈院定訴狀，言取隨言者眾民，先執
 被告言者縛之，打之，言者使捕納教徒，則葉兒禍機言者遂與
 里民言者搜覓教黨言者捉得教人，言者言者被告亦亂民指
 使言者從言者教民言者控納言者情節言者難掩言者則被告高三
 伯言者本年陰曆三月二十三日大靜屋美遇俗趙士成等，領
 民人教千人言者到為美里言者招致五鄉住言者使各巡巷應會
 言者言者發令言者司若不應會言者同鄉住言者當死言者故言者不敢違期
 言者被告亦亦以洞長言者四月初九日民會言者所注觀言者死
 者三十餘名，言者精神言者昏迷言者暫為避身，言者不被捉

三 理院

往見則玄維順捉束之通文言者使被告言者言者不得已應行言
 五十三日夜言者仍為逃避言者其羽言者被告言者所居洞網住言者維
 緝言者控告言者捉束之令言者言者於屋火故言者被告言者妻子押去
 民會則勢無奈何言者自視民會失言者引言者欲為死殺言者言者
 端泉乞言者言者及棍于度言者口裏出血之狀言者三郡人共知言
 言者教人五名言者要得降和言者言者之教師言者則所去書言者
 被告言者書寫言者出於姜遇伯言者招言者及其對質言者場言者美供
 歸誣言者梳言者自服言者得言者引言者在寺言者所供言者說言者書言者果在
 根言者所書言者言者多被告言者不諱言者不書言者言者錄言者有言者據言者言者當初民
 會言者往赴言者言者書寫之役言者應行言者言者言者難完言者言者則被告

李美伊之春節初會教始若被者不往見被會者
 李司歸之願在會立外書名不登自第三次外本牙
 陰曆三月望初本科第不為人國民者立外論以會故
 仍燒燈日自露教立外之同日念初初及外外外外
 不本籍之立外初是長大錢外故高次頭名之初被者外
 同室居住立外之立外初被者為家外所推立外初被者
 立外大錢所在家者初不立外之被者之其外初被者
 立外五刑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年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月望初本科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平理院 外 道
 李以被者有司之任故立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無丹關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外民擾之起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証立外明白立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謀殺人造意者律外大會通推斷條軍服騎馬作假官
 門者律外大明律名例二罪俱發以律論條外二罪以上俱發罪
 各等者律外科新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同律人命編謀殺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外初被者
 推斷條軍服騎馬作假官門者律外大明律名例二

罪傷教以重論條凡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文則照錄處
 立五杖若金南赫趙士成高欽守李元方之大典會冊推
 斷條軍賊騎馬作廢官門為檢者律例照文外管二百懲
 條終身之處言凡金南赫李在守司投書惡動言言
 務懈言圖命之計互開問言外言故意行事言然有
 聞言言趙士成言姜恩伯例威督言被言外隨行言外先
 多其情狀言食有恭怒司并司本律例一等差減言外管
 百懲杖十五年之處言高永守言以今正天五年近七旬
 以飭民以威督言被言以權鏡隨行言外六下故意行言
 証據司無言李元方言李在守司杖勒強從言外六下

平理院

第 三

教中四十餘人言救護言事司有言言其情狀言酌量
 言本律例二等三減言外管二百懲杖十年之處言且被
 生高三伯姜恩伯伊身發三之大明律搥打編不應為條凡不
 應得為兩處之事理重者律例照文外管十例處言五下

光武五年十月九日

平理院檢事安鍾基檢事民相乾檢事李澤望文會

平理院

裁判長李根澤
 判事民相奎
 判事申慶均

判決宣書第四十六號

全羅南道濟州牧居

大靜前郡守

被告

蔡龜錫

年五十四

右被告蔡龜錫對宣書案件由檢察官許審理則被告供稱云

己亥陰曆七月分川大靜郡守是被告性言云辛丑三月分川本郡右面

各里民以捧枕時榮瘼云云來會本郡言昨搜得吳大鉉

副字改

昨勒為狀頭改報告本牧言知照枕官言昨從民領仲理

意云既飭解散矣引云翌日則左面人民亦稱枕榮等

云聚會于邑距五里許地云故云躬往諭曉言昨伴即各歸矣

正理院

州道

引云同月念後川濟州西村龍水高山清水等四里之民聚黨

突于本郡言昨查得吳大鉉言昨聚會于濟州龍水里故云

副字

馳往曉飭言昨使之各歸則眾民三郡之民不耐枕榮與

教榮言昨今月二十日會同于濟州南門外黃沙坪言立請三

郡守及朝官儒鄉耆吏言昨一場談辦後呼訴本牧言昨枕榮

云成節勿施言云教榮云定約條遵行可引事不如意言昨上

京呈訴次民議已定言云今不可中途廢改言云發向濟州而推

義之民與濟州東村之民云并動矣引至千六百言昨其身

引因本牧使署理金昌洙書招言昨發行向州引引教徒數百

人引持銃佩劍言云到濟州翰林洞言昨炮傷平民言云直到大

靜言非勒奪軍馬言據城放砲言中丸死者人可殺傷者亦
 多矣引教人等聞三郡民齊會之說立翌日發行言遂入府
 內言據城鎖門立埋砲掃戰而見黃沙坪來會之民言立出
 去南水口外言砲殺平民無所顧忌是以民心昇沸言
 山野砲手外亦為來會于東西門外故立矢身往民會所言
 慎勿向教師放砲之意立百餘曉諭言立首尾數則奔馳東西
 言曉諭愚民言至四月十日府內此糧俱言言為婦
 等引取會開門言東西門外羣聚之民引齊入府中言搜
 捕教徒引每立壓殺言立至言引衆民引欲為縛去教師故立受
 身與本郡守會誅立并力保護言立耳提面諭於會民言非

三 理院

道

其翌日引東民東出言西民西出言各屯其所佳處而不為
 解散言王師出駐後始乃歸化言民擾類言始不
 枕官言非終於教徒言詳載於新收使及察理使報告則不受
 詳陳使言今言舊民擾時言實有勤勞言初無罪犯言言言蓋
 此事案言 光武五年十月分引濟州民擾狀頭吳大鈺引李在
 守引姜遇伯等言押立審查之時言被告言不以應問人之言同時
 被告言言言狀頭言犯言已為言伏法言立言隨從諸民言分輕重言勤言姓
 言言言言被告言之言漸言其時聽言審官及堂教師具瑪瑟言十論言
 俱以有罪思量言言言然言言言証據未備言五犯情言言言不服言言言一
 滯言因言三年未決言言言被告言不言身為言字收言之言官言言言民教言起言擾言

改

不能彈壓言詐以致蹂躪殺傷之境言五且軍鬼保監司何等慎
 重和官庫所儲鬼伏言多數見於教民言變六溺職之罪六
 難建當勘言其事實可被告陳供自服七諸証人供下証言詐
 明白言刁刁被告蔡龜鑑言大明律令或編制書有違條凡奉
 制書有所施行而違者律以同律附例軍政編錄軍軍卷八應
 軍犯遺失至干律以同律各例二罪俱發以重論條凡二頭以根
 發以重者論文可照言詐答九十懲役二年半以處言干下

光武七年九月三日

平理院 檢事 洪鍾德 檢事 金正務 檢事 金洛憲 文會

平理院

裁判長 李南熙

平理院

判頭

判事 朴鋪知

判事 大明載

判事 朴承祖

判事 宋安會

主事 金教翼